

전북도, 정읍 미래산업·산림복지·생활인프라 '마중물'

내장산 '놀이터' 도비 12억 등 투입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순항

국립숲체원 진입도 도비 10억 지원

동물의약 규제자유특구 '청사진'

전북도가 정읍시와 협력해 첨단산업 육성과 관광 인프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도는 20일 정읍시청에서 '도민과 함께 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열고 정읍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부터 첨단산업 육성, 출산 인프라 구축까지 정읍시 발전의 마중물이 될 안건들이 주로 다뤄졌다.

도와 정읍시가 함께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민생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먼저 내장산 문화광장 내 '기적의 놀

이터'는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7개 테마 놀이공간으로 도비 12억 원 등 총 4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9월 정식 개장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아동의 놀 권리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서부권 출산 인프라 공백을 메울 공공산후조리원도 순항 중이다. 정읍 아산병원 인근에 조성되는 이 시설은 임산부 실과 신생아실,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며, 내년 1월 본격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이 전주와 군산에만 있어 정읍·김제·고창·부안 등 서부권 산모들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던 만큼 건립에 기대가 크다.

미래 면거리를 위한 연구시설 유치도 탄력받고 있다.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우주 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은 총 2,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타당성 연구 용역비 5억 원이 국비로 반영됐다. 올해부터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에 돌입하며 오는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정읍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정읍 북면 북흉리 일원에 들어서는 국립숲체원은 전북 최초의 산림복지 거점시설로 지역 내 산림치유·휴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진입로가 협소해 이용객 접근의 어려움에 따라 정읍시는 연장 1.72km, 폭 8m 규모의 2차선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다. 도는 2027년 숲체원 개원 시점에 맞춰 도로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을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키우려는 청사진도 구체화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정읍시는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본부,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등 특화 인프라를 갖춰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개발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11차 규제자유특구 후보지역에 선정됐다. 전북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50억 원이 투입되며, 신약 효능·안전성 평가, 독성시험 간소화 등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도는 180㎢ 규모의 입주 공간을 확보한 정읍시를 특구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첨단산업 유틸리티, 출산환경 개선 등 정읍시의 현안을 도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성과 창출에도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기업 애로 해결사 자리매김

민선8기 누적 애로 5,641건 접수
실질 해소율 78.2%…매해 상승
전력 수급·투자유치 등 개선 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반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출범 이후 기업과 행정 간 소통 창구가 제도적으로 정착, 기업들이 보다 편안하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도와 14개 시군이 관내 기업과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해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도 500개, 시군 2,297개 등 총 2,797개 기업이 전담 대상이며 월 1회 현장 방문과 주 1회 유선 면담을 원칙으로 기업 경영 전반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유형별로 분류해 담당 부서에 연계되고 처리 결과는 기업에 신속히 안내된다.

민선 8기 들어 처음 선보인 전담제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접수된 애로사항이 5,641건에 이른다.

이 중 63.2%가 해소된 가운데 1년 이내 해결이 예정된 단기검토 건까지 포

함하면 실질적인 해소율은 78.2%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인력 관련 애로가 842 건(14.9%)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안전 745건(13.2%), 판로·마케팅 730건(12.9%), 자금 704건(12.4%) 순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1,712건 가운데 1,257 건을 해결하는 등 연도별 해소율은 2023년 54.6%, 2024년 61.5%, 2025년 73.4%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며 기업과 행정 간 신뢰가 촉작된 결과로 분석된다.

시군으로 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환경 정비(제초·제설), 단순 제도 문의 등 기업 현장의 생활 밀착형 문의가 늘었다. 도는 이를 단순한 통계 개선이 아닌, 기업들이 행정 기관의 문턱을 낮게 느끼고 사소한 어려움까지 편하게 공유하게 됐다는 신뢰 회복의 신호로 보고 있다.

실제 기업 경영에 변화를 이끈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A기업은 새만금산단 신축공장의 전기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담공무원이 유관기관, 지역 정치권 등 한국전력과 협의해 연도별 전력 사용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장 준공 시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B기업은 원료 수급에



지난 2022년 12월 14일 1기업-1공무원전담 기업애로해소 출범식 <사진=전북도>

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해 220톤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했다.

2024년에는 C기업이 해외 이전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전담 공무원의 밀착 조가공업 등록 지원 문제를 관계 부서 협업으로 신속히 해결되며 기업의 초기 정상화를 지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해소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성과는 기업이 언제든지 연락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이숙한 행정 파트너가 생겼다는 점이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먼저 현장을 찾아가 작은 불편부터 경영 전반의 과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道,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전북도는 올해부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육 정책은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

을 맞췄다.

사업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무상보육 기반 확대 ▲보육료 및 급·간식비 인상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아침돌봄 수당 신설 등이다.

보육 안전망 확대 정책 운영...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도내 90일 이상 거주한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3월부터 시행하며, 정부 보육료 단가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0세 월 17만원, 1세 15만원, 2세 12만4천원, 3~5세 8만4천원이며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제

외된다.

이달부터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대3에서 1대2로 개선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국가책임형 무상보육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급·간식비는 영아 1일 2,600원, 유아 3,740원으로 상향된다.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는 3%, 기관보육료는 5% 인상된

있다"며 "어제 국민의힘이 당비 납부 당원이 10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발표했다. 이 100만 당원이 통

한원도 원내대표 한원도 원내대표는 20일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확인됐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당원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협박하고, 오리걸음 같은 기합까지 시켰다는 보도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른바 '필라테스'라는 작전 명 아래 최근 5년간 최소 5만여 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아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서 통일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밝혀진 바

/서울=김영목기자

한병도 "국힘 백만 당원, 통일교·신천지 유착 의심"

"조직화로 5만명 입당" 의혹

"정교유착털자" 특검 수용 압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확인됐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당원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협박하고, 오리걸음 같은 기합까지 시켰다는 보도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른바 '필라테스'라는 작전 명 아래 최근 5년간 최소 5만여 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다"며 "국민의힘을 묻는다. 아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서 통일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밝혀진 바

윤준병, 전북자치도 특례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자동차스마트제조 지원 특례 신설
외국인 유학생 체류 요건 완화 등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북 도내 글로벌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디자이너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만족하는 지원도 아니지만,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기 위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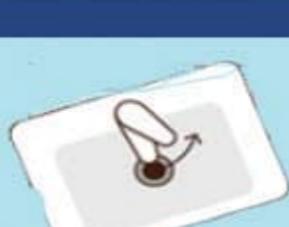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8시 이전 등원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에 전담 교사를 지정할 경우 하루 1만4천 원을 지급하며, 최대 2개 반까지 지원 한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영아반 담임 월 28만원, 연장반 전담 월 14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침돌봄 수당은 오전

/김은지 기자

겨울철 생활 속 난방비 절약 꿀팁



온수 사용후 수도꼭지 냉수 쪽으로 돌려놓기
물을 데우기 위한 불필요한 공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출 시 보일러는 외출모 드로 전환하기
보일러를 껐다가 다시켜면 오히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어요!



방한용품 적절히 사용 하여 체온 유지하기
내복이나 양말을 챙겨입고, 전기매트를 사용하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돼요!

세계 선도 K-컬처 산업도시 “전주”!

문화·관광·체육 분야 4대 추진 방향 발표 미래 성장동력 분석 가동

전주시가 문화가 되고, 관광이 산업으로 성장하는 K-컬처 산업도시에 우뚝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20일 ‘세계를 선도하는 K-컬처 산업도시로 도약’을 비전으로 한 문화·관광·체육 분야 4대 추진 방향과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4대 추진 방향은 △글로벌 문화산업도시 조성 △전주미식관광도시 구현 △세계 속 ‘전주’ 역사문화도시 위상 강화 △세계 향한 도전 △스포츠거점도시 도약 등이다.

먼저 시는 2026년을 문화가 산업으로

확장되는 전환기로 설정하고, 창작 중심의 문화정책을 콘텐츠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되는 산업 구조로 연결하는 문화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한다.

특히 영화·영상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연말 준공 예정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과 AI 기반 VFX 후반제작시설 구축을 통해 제작·후반·유통으로 이어지는 산업 전 주기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

시는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기존 단기 방문 중심의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착공 예정인 음식 관광 창조타운을 중심으로 전주의 미식

자산을 콘텐츠화하고, 한국에서 제일 맛 있는 레스토랑, 전주의 미식관광 브랜드 구축에도 나선다.

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방문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전주 전역 관광자원을 여행자 시선에서 재구성하고, 아종호수·오목대·아간경관 조성, 태조로 가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밤이 되면 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시는 후배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이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천년 역사자산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장하는 역사문화도시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시는 △K-한지마을 조성 △한

지문화예술촌 및 다풍경 관광 조성 △전통한지 후계자 양성 △국제한지산업 대전 개최 등을 통해 전통한지를 세계 시장과 연결되는 K-컬처 산업 콘텐츠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범시민 협력체계를 구축해 2027 전주 아시아도선수권대회와 2026 아이스하키 아시아챔피언십을 차질 없이 준비·개최해 국제대회 운영 역량을 측면하고, 올림픽 유치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육상경기장·야구장·실내체육관 등 핵심 체육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는 2027년부터 스포츠 중심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Society 사회

전주농생명연구원, 당뇨병 예방 조성물 특허 등록

‘전호 추출물 활용 당뇨병 개선 조성물’ 특허 등록 완료

(재)전주농생명생소재연구원은 연구원 박미희 박사팀은 전호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당뇨병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특히 전호 지상부 및 지하부 추출물의 제2형 당뇨병 조절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탄수화물 소화 효소인 alpha-글루코시다제(alpha-glucosidase) 및 인크레틴 분해 효소인 DPP-4 (Dipeptidyl Peptidase-4) 활성 저해 △세포내 포도당 흡수능(Glucose uptake) 증진 △췌장 베타(beta) 세포 보호 효과를 동시에 확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호 지상부 추출물이 지하부 대비 DPP-4 저해 활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익한 우수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전호 지상부의 고부가 가치 기능성 바이오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연구원은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전호 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으며, 기존 전통적 식용 소재로 제한됐던 전호의 활용 범위를 고부가 가치 기능성 바이오 소재로 확장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미희 (재)전주농생명생소재연구원 박사는 “이번 특허는 전호가 가진 바이오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성과”라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관련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강한경제구현’ 현장소리에 귀 기울여

20일 우 시장 ‘전주페이퍼’ 방문 기업 견의 및 애로사항 청취 맞춤형 지원 ‘속속’

우범기 전주시장 2026년 ‘강한 경제’ 구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향토기업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우범기 시장은 장수기업 전주페이퍼(대표이사 심철식) 전주공장을 방문해 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기업 현장 방문은 시장이 직접 지역 산업 현장의 견의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우 시장은 간담회 직후에는 생산 현장



20일 우범기 시장은 장수기업 전주페이퍼(대표이사 심철식) 전주공장을 방문해 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로

비에서 임직원 50여명과 소통하며 현장

의 생동감을 확인했다. 전주페이퍼는 현재 400여명 임직원이 근무하며 신문 용지와 골판지 원지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향토 제지 기업이다.

이날 전주페이퍼는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전주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한지박물관에 대한 지원과 공업용수 절감 노력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 현실화를 시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이 제시한 견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시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규제 개선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자연환경해설사 6명’ 채용

오는 27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전북지방환경청은 자연환경해설사 6명을 신규 채용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 내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관광지역 담당방에 암질의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연환경보전 인식을 증진코자 한다.

채용지역·인원: △습지보호지역 △고창 운곡습지 △정읍 월영습지 (생태관광지역)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슈 △남원 지리산정령치즈와 운봉 백두대간 △장수 금강 철물 뜯봉샘과 수분마을 (기준) 3명(고창2, 정읍1) → (확대) 6명(고창2, 정읍2, 남원1, 장수1)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전주 함께라면’ 전국지자체 벤치마킹 ‘모델’

전주자치단체 적용가능성 ‘모색’

전주형 복지모델 ‘전주 함께라면’이 전국 지자체들의 주목으로 이어지며 전국 자치단체 밤길이 전주시를 찾아들고 있다.

20일 전주시는 경상남도 진주시·경주시·부산·울산·대구·경북·제주 등 전국 10개 지자체와 함께 전주시에 향토기업인 전주페이퍼(대표이사 심철식) 전주공장을 방문해 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 시장은 간담회 직후에는 생산 현장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전주시 ‘함께라면’ 사업 운영 방식과 성과를 공유하며 타 지역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전주시 방문단은 ‘함께라면’ 운영

현재 전주시는 45개 지자체 및 기관이 전주를 찾아 운영 사례를 청취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행정안전부 재

난안전관리본부 관계자들이 전주시 ‘함께라면’ 운영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함께라면’ 사업은 사회적 고립 및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밀착형 복지모델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30일 서울 ‘사회적 고립 대응 제도평가’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관련 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신호 위반 화물차 운전자 구속

13명 사상(9명 중상, 4명 경상)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과는 지난해 12월 23일 16시 25분경 김제시 백산면 돌제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초등학교 통학 차량과 충돌한 화물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20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현장조사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통학버스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화물차량 운전자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

/정소민 기자

“전주시 공공예식장 이용 편리해진다!”

민간 웨딩업체 표준가격(안) 마련

전주시가 청년들의 예비 신혼부부 편의를 위해 웨딩컨설팅과 예식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공공예식장 대관사업을 통해 전주시 공공시설 8곳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공예식장 대관사업’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결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겹소하고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 공공시설 8곳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식 장소만 제공되고, 꽃장식 등 결혼 부대 비용과 출장 뷔페, 예식 진행 및 구성 등을 예비부부가 자율 선택하도록 운영되면서 이용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는 민간 웨딩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결혼 비용에 대한 표준가

격(안)을 마련해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예식 장소에 적합한 웨딩 컨설팅(예식 연출, 진행, 관리, 꾸밈 등)을 제공하고, 전주시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예비부부에게 예식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매력적인 공공 예식 공간을 추가 확보해

예비부부들이 개성과 의미를 담은 결혼

식이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전세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생애 최초구입 주택취득세 감면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현안 해결·국가예산 확보 위한 국회 공조 ‘박차’

전주시가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산적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국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공용회의실에서 윤동우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사

업 관련 실·국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실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필요 사업들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협

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주의 지형을 바꿀 대규모 프로젝트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요청한 주요 현안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전주역사 ‘서가가 있는 공간’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사업이다.

또한 시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전주의 첫관문인 전주역사에 ‘서가가 있는 공간’을 조성해 ‘책의 도시 전주’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 한 중점사업인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와 건립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위한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장애인·노인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위험요인 사전 제거·신속 대응책 마련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요양병원과 노인관

농진청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AI 기반 스마트 축산 탄소중립 실천 등 20개 사업·154억 규모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은 2026년 전국 94개 시·군 207개소에서 총 154억 원 규모로 20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축산 전환'을 핵심 목표로, 연구 성과를 농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먼저 고온 스트레스 저감용 첨가제를 급여하는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을 추진한다. 연구 결과, 첨가제 급여 시 등지방두께는 49.2% 감소했고, 등심단면적은 15.3% 증가했다. 또 근내지방도는 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 횡성, 보령, 울산 등 20개 지역에 6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또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전환하는 가축분뇨 퇴비화·발효시스템 기술 보급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농가 규모에 맞는 발효시설을 구축함

으로써 퇴비 부숙을 촉진해 작업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2026년에는 안성·음성·포항 등 13개 지역에 13억 원을 지원한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교배 후 18~21일에는 88.4%의 정확도로 임신을 판별할 수 있고, 22~25일에는 95.7%까지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를 통해 농가의 번식 관리가 더 쉬워지고, 비생산 일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임실·장성·합천 등 15개 지역에서 9억 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시군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26~27일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술 설명회를 연다.

/김영태 기자

증기증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공고

내달 20일까지 신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2월 2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참여 조합을 모집한다.

된 총 17억원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조합당 사업비 80% 최대 1억원 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 신설된 AX·DX분야 협동조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고도화 및 AI 기술 활용 반영 등 협동조합 혁신형 전환을 새롭게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 조합은 사업공고를 확인해 2월 20일까지 신청서류를 협동조합 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설 특별자금 지원"

도내 중소기업 대상 운영자금 조달 등 기여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경옥)는 설명절을 앞두고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특별자금 지원내용

지원규모 : 100억원 (금융기관 대출취

급액 기준 200억원)

업체당 지원한도 : 5억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0억원)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 2026. 1. 26. ~ 2026. 2. 13. 기간 중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

지원내용 : 대상기간 중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금액의 50% 이내(일반지원부문 지원비율로 비례배정)를 저리(2026. 1월 현재 연 1.0%)로 금융기관에 지원

지원 제외 : '주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사행시설', '병의원', '약국(소매)' 등 대출제외 업종 및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우량업체

한국은행 전북본부 김경옥 본부장은

"이번 특별자금 지원으로 설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 내 중소기업 운영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http://www.bok.or.kr>)에서 지역본부-전북본부로 접속)을 활용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박병철 한국노총전주시지부 의장, 지역민 아웃사랑 '동참'

NH전북농협 지역사회 공헌단 300만원 기탁

지역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이웃 위한 기부금 전달에 박병철 한국노총전주시지부 의장이 동참했다.

지난 16일 박병철 한국노총 전주시 지역지부 의장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달하고자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에 3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지난 2026년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설립 7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박병철 의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민과 농업인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인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설립 7주년을 맞은 NH전북농협 지역사회 공헌단은 박병철 의장 제안에 설립된 봉사단체다.

이에 따라 전북농협 임직원 급여 0.5%가 매월 기부되며 재원으로 마련된다.

NH전북농협 지역사회 공헌단 기부에 의해 마련된 재원은 'NH해피하우스 집 고쳐주기', '사랑의 연탄 기부', '소외계층 쌀', '김치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큰 보탬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지역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이웃 위한 기부금 전달에 박병철 한국노총전주시지부 의장이 동참했다.

전북경진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기업 모집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병원과 협력해 공간·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인프라와 연구자원·전문 인력 등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한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경진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이 함께 운영 중이다.

보건산업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업 입주, 시설·장비 활용까지 지역 내 다양한 인프라를 연계해 초기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바이

오헬스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북에 위치한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 10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으로, 혁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바이오 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이다. 도와 기업의 경우 선정 후 2개월 이내 전북으로 기업 이전 및 지점 설치를 할 경우 대상이 된다.

선정 기업에는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과 실증·병원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사업화자금 최대 15백만원이 지급되고, 입주공간 또는 코워킹스페이스

가 제공된다. 또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 등의 병원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업 모집은 오는 2월 9일까지이며,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은 기술사업화 전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기업 모집 공고의 상세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농촌진흥청 '뚱보귀뚜라미' 발굴

생육 특성 분석 곤충 사육 새로운 대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서식종인 '뚱보귀뚜라미'(Duolandrevus ivani)를 발굴해 실내 사육 적정 조건을 밝혔다.

국내 파충류 면역 곤충 시장에서 귀 뚱보귀루미는 쌍벌귀루미(Gryllus bimaculatus) 한 종에 구조적으로 편중돼 있다.

쌍벌귀루미는 생산성이 우수하나 단일 종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 질병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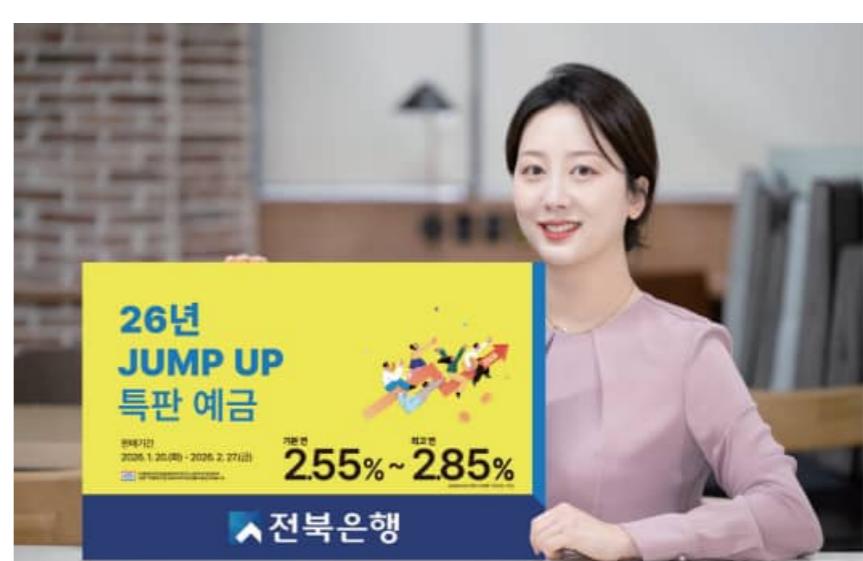
이에 농촌진흥청은 쌍벌귀루미 대체 종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제주도 자생종인 '뚱보귀루미'를 새로운 사육 후보군으로 발굴했다.

더불어 '뚱보귀루미' 생육 특성을 정밀 분석해 실내 사육 적정 조건 온도에 따른 생육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25~30도 범위에서 '뚱보귀루미' 생존율과 발육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했다.

'뚱보귀루미' 적정 사육 온도는 기존 쌍벌귀루미 농가의 사육 시설 온도와 비슷하므로 농가에서 새로운 시설 투자 없이도 '뚱보귀루미'를 도입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26년 JUMP UP' 특판 예금 출시

내달 27일까지 판매

상 총족 시 연 0.20%, 특판 적금 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연 0.10% 등 최고 연 0.30%가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일반 법인으로 계좌당 100만원 이상, 고객당 50억원 한도이며, 종 판매 한도는 3,000억원으로 판매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26년 JUMP UP 특판 예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유정기 권한대행, 유아 돌봄 현장 점검·격려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상황·통학차량 안전관리 실태 확인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20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성현유치원을 방문, 유아 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방학 기간에도 안정

적인 교육과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유아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유권한대행은 유치원 시설을 둘러보고, 유아들의 놀이·수업 활동을 참관하며 교육과 돌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어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와의 차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

로사항을 청취했다. 교원들은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유아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내실있고 안전한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스템 마련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하원 시간 통학차량에 탑승해 유아 하원 과정과 통학차량 안전 관리 실태도 확인하고, 유아 안전 확보

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방학 중 방과후 과정 및 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원 학습코칭 전문성 ‘강화’

22일까지 전문과정 연수 학생 학력 향상 등 지원

전북교육청이 교원 학습코칭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교원 학습코칭 전문성 강화는 교사가 학생의 학습유형과 학습 걸림돌을 정확히 진단하고, 동기부여와 학습전략 지도를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습관 형성과 학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습코칭 전문성을 심화하는 계획이다.

교원 학습코칭 연수는 기본·심화·전문과정으로 체계화해 운영된다.

이번 전문과정은 심화과정 이수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직무연수(18시간)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코칭 수업 디자인 △성장 마인드셋 기반 코칭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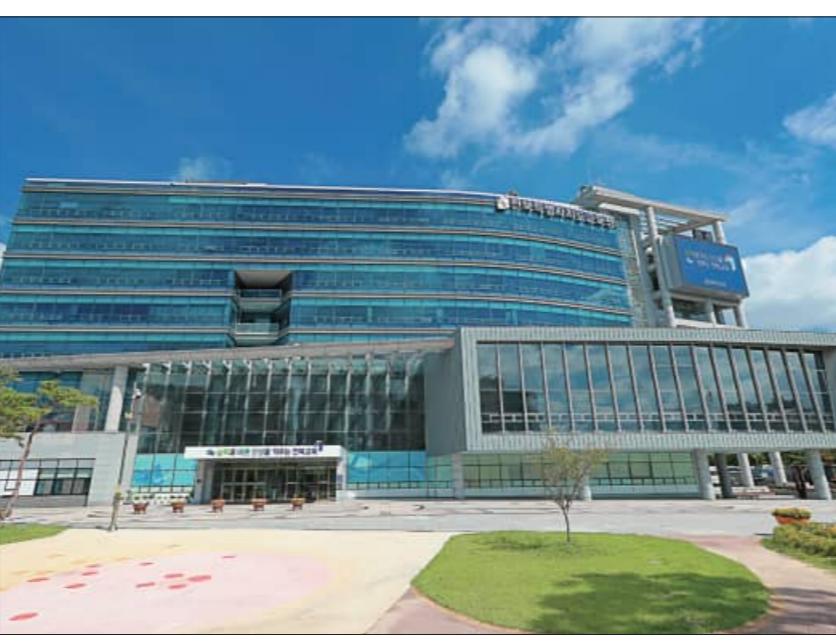
△표준 학습코칭 교육과정안 개발 △학교 현장 중심 실습과 피드백 등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실행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외부 전문가와 현장 교사가 함께 참여해 실제 교실에 적용 가능한 학습코칭 모델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문과정 연수 이후 학교 현장 적용과 연계해 2026학년도 ‘학습습관 형성 60일 프로젝트’ 운영을 수행하며, 실제 교실 속에서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을 실천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교원의 학습코칭 전문성이 실제 학생의 학습 변화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정책의 핵심 축이다.

이를 통해 교원 학습코칭 역량 강화 → 학습코칭 기반 수업·학습관리 →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전북교육청이 교원 학습코칭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교원 학습코칭 전문성 강화는 학생의 학습습관 형성과 학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심화하는 게 목표이다.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현대, 2025시즌 우승 ‘관중의 힘’

경기당 평균 관중 1만8425명으로 집계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2025시즌 K리그1과 코리아컵을 모두 제패하며 더블 우승을 달성했는데 홈 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시즌 내내 안정적인 관중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 대표 여가 공간으로 기능했다.

2025시즌 전북현대의 누적 관중 수는 36만8505명,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84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현대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시즌 30만 관중을 돌파한 기록으로, 비수도권 연고 구단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위해 건설된 시설로,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제한적인 예산 여건 속에서 전면적인 개선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세워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와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며 작게는

게이트 도색부터 크게는 LED조명 설치까지 현장 체감이 높은 개선부터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팬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조성하고 스

토어를 리뉴얼 오픈해 경기 외 시간에도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마련했다.

LED 조명 설치를 통해 경기 관람 환경과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했으며 각종 노후 시설 보완과 편의시설 정비 등 기본 인프라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현대는 “더블 우승과 관중 증가라는 성과 뒤에는 연고 지역 자치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안정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주시,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적극적인 협력 유지를 통해 시민과 팬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IB 기반 탐구 수업·평가 실행 연수 운영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 ‘IB 기반 탐구 수업·평가 실행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국제 바킬로레아 (IB) 프로그램의 철학을 바탕으로 탐구 중심 수업과 평가를 실제 수업 설계로 연결하는 실행 중심 연수로 구성했다. 전북에서는 1월 현재 PYP(초) 12교, MYP(중) 13교, DP(고) 6교 등 총 31교의 IB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전주이중초와 영만초, 화산중이 IB 월드스쿨로 인증받아 전북형 수업혁신 모델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IB 기반 탐구 수업·평가 실행 연수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양현고 등학교에서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임실 Wee센터 지원학생 ‘추수상담주간’ 운영

전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효선)은 2025년 위(Wee)센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위기 예방을 위해 내달 6일까지 추수상담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수상담 대상은 2025년 위(Wee)센터 지원 학생과 학부모로, 학생 개인의 정서 상태와 학교·가정 적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추수상담 △정서적 안정을 돋기 위한 마음 꾸러미 전달 △위기 스크리닝 등으로 구

성됐다.

특히 위기 스크리닝을 통해 학생의 현재 심리·정서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상담이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효선 교육장은 “추수상담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돋는 사후 관리 과정”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상담을 통해 위기 재발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노면 습기가 있거나
결빙 예상구간에서는
절대 감속!

급제동, 급핸들 조작,
급가속은 절대 금지!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기

차량이 미끄러질 때
핸들은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

군산 수송동, 주민 작품 상설 전시 '수송갤러리' 오픈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곽은하)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민철)가 행정복지센터 2층 복도를 '수송갤러리'로 조성해 21일부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한다.

'수송갤러리'는 함께하는 배움, 성장하는 우리 공간을 주제로 꽃그림세밀화·캘리그래피·서예·문인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오픈을 기념해 수강생들의 교육 과정을 담은 사진전도 함께 운영한다.

첫 전시에는 3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시된 작품들은 주민들의 도전이 하나의 예술로 꽂고 있는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김민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수송갤러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성장 과정을 이웃과 나누는 열린 문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폐렴구균 무료 예방 접종' 상반기 내 완료 당부

군산시는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해달라고 20일 당부했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나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생활 단 1회 접종만으로도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폐렴증, 뇌수막염 등)을 50~80%까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적기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1961년생(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본인의 생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어, 타 지역에 일시 체류 중인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폐렴은 고령층에게 매우 치명적인 감염병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며, "환경기와 동절기 건강 관리를 위해 비고적 활동이 원활한 상반기에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꼭 접종을 마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예방 접종실로 문의 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다이로움 “2월엔 100만원 충전”

한달 간 한도 상향 충전·지정 정책가맹점 결제 시 최대 20% 혜택

익산시 대표 협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이 2월 한 달 동안 파격적인 혜택으로 시민을 찾아간다.

익산시는 2월 한 달 동안 다이로움 구매 한도를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설 명절과 신학기 준비로 가중되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골목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다이로움 이용 시민은 100만 원을 충전할 경우 곧바로 10만 원의 지원금을 챙길 수 있다. 기준 한도 대비 혜택 금액이 4만 원이나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가맹점을 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20%까지 늘어난다. 익산시가 지정한 정책지원가맹점과 착한가맹점, 다이로움 택시를 이용하면 최대 10%의 추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이로움 정책지원 가맹점은 △익산 치킨로드 7개소 △착한가맹점 35개소 △청년몰 12개소 △지역 서점 29개소 △글로벌문화관 3개소 △다이로움 택시 1,000여 대다.

이들 가맹점에서 다이로움 결제 시 10%의 정책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착한가맹점 58개소에서는 자체적으로 5~10%의 상시 할인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 20%의 파격적인 할인 효과로 물가 상승분을 상쇄하는 '민생 백신'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과 신학기라는



소비 집중 시기에 맞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다이로움으로 지역사회 곳곳이 상생하는 따뜻한 2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시정 운영 방향·추진과제 점검

주요업무계획보고회 개최 시민 체감 변화에 역량집중

군산시가 재생에너지·첨단 산업 분야에서 축적된 성과를 시민의 일상 속 변화로 연결하는 시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20일, 시정 상황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 주재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부서별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가 정책 기조와 군산의 지역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주요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시정 운영 방향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먼저 시는 '군산의 더 큰 미래'와 '시민의 든든한 일상'을 시정 운영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성장을 통해 확보한 경쟁력을 민생과 일상으로 확장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총 705개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사업 95개와 계속사업 610개로 구성되며, 국·소별 핵심 사업 34건이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주요 신규 과제로는 △아이와 청년을 함께 키우는 인구대응 패키지 △군산형 기본사회 구축 △시민정책스토롱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RE100 산업단지 지정 추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첨단 신산업 육성 △새만금관찰구역 결정 및 기본

계획 재수립 대응 등 군산의 중장기 성장과 직결되는 계획사업도 논의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군산시는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구조를 확장해 꼭 접종을 마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027년 국비 확보 위한 본격 행보

최재용 부시장, 행안부 중기부·농림부 등 방문

익산시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20일 최재용 부시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단은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을 차례로 찾아 주요 사업이 정부 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복되는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 안전산업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평화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옹포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목천포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재해 예방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준공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연계한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사업'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확장을 위한 '국립익산식품박물관

조성'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재해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처별 예산안 단계부터 지속적인 설명회와 협의를 이어가며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국가예산 반영의 핵심은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부처 예산안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여 미래 성장 동력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농업인 역량 향상 도모 2월 3~5일까지 진행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농정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작목별 핵심 재배기술과 농업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5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관심 작목을 반영해 총 4회

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2월 3일과 4일에는 식량 작물인 녹콩과 벼 재배 기술 교육이 진행되고 2월 5일에는 지역 소득 작목인 수박과 복숭아 재배 기술 과정이 이어진다.

교육에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재배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한 해 영농 방향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일정과 세부 내용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농촌자원과 인력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10년의 동행' 정현율 익산시장, 주민과의 대화

29일까지 총 4회 진행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익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깊이 있는 담론이 오가는 자리로 마련된다.

3선 임기 동안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의 결실을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공사 △인도 정비 △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세심하게 진행된다.

회차별로 △1회차 오산면과 중앙·평화·모현·송학·마동 △2회차 남중·영등1·영등2·여양·신동 △3회차 왕궁·춘포면 및 인화·동산·필봉·삼성동 △4회차 학암읍 및 황등·합라 등 북부권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대중교통 무료환승제 도입 '착착'

정읍시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무료환승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시 교통과 직원들은 최근 시내순환버스 277번 노선에 직접 탑승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운영 여건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 탑승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무료환승제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시민들의 이용 패턴 변화를 예측하고, 환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현장 중심의 정책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

/정읍=김정인 기자

(유)마한호텔은파밸리스, 군산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유)마한호텔은파밸리스를 운영하는 조계식 대표는 "기업인으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이번 기탁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은 개인 기부를 넘어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의미가 있다"라며 "소중한 뜻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계식 대표는 이번 기탁으로 군산시 16호이자 전북 114호 회원으로 등록됐으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정읍시가 여성농업인들의 직업병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총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노출에 따른 중독 여부 검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농작업 관련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시 '출산급여 지원사업' 첫 시행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대상.. 본인 출산 90만원 배우자 출산 80만원 지원

김제시는 출산으로 인해 소득 단절을 겪기 쉬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이 지역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 대체가 어려운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해, 출산 전후 발생하는 생업 공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청년(18~39세)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으로, 본인이 출산 한 경우에는 출산급여 90만원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후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정책 방향과 연계해 도시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며, 광역-기초 간 협력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

출산급여 및 출산후가지원금 신청을 위한 공동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제시에 있어야 한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자녀를 김제시에 출생신고한 경우에 해당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노상놀이야', 공연평가 '최우수'

농악·공동체적 흥 재해석

전달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퍼레이드 형식의 공연은 고창읍성이라는 역사적 공간과 조화를 이뤘다.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공연성이 균형 있게 어우러지며 고창읍성 일대를 활용한 순회행연 축제로 선정됐다.

공연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관객모니터링단 평가를 비롯해 공연 운영의 완성도, 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고장 노상놀이야는 "전통 농악의 미학과 공동체적 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미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는 호평이 이어지며 시즌2를 기대하게 했다.

고미숙 고장군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최우수 선정은 전통 농악이 지난 예술성과 공동체 정신이 오늘 날에도 충분히 공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며 앞으로도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공연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월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본격화

국비 포함 총 68억 원 투입… 2028년까지 진행



고창군이 올해 신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월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한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세곡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

유군수 “도지사 완주 방문, 정책협의 돼야”

유희태 완주군수 도지사 방문 관해
 “통합 강행 자리아니…공조 논의”
 “피지컬AI 광역 책임 분담 필요”

유희태 완주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 방송은 특정 사업을 강행하거나 어떤 결론을 미리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니다”며 완주군의 주요 현안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정책 협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군수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어야 군민의 다양 한 목소리를 도정에 전달할 수 있다”며 “대화가 차단되면 완주군의 요구와 지역 발전 과제를 논의할 기회조차 잃게 되고, 이는 결국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군수는 특히 완주군 일원에 조성 될 예정인 ‘피지컬 에이아이(physical AI) 생태계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유군수는 “이미 2025년 정부 2차 추경에 시범사업 예산 국비 219억 원이 반영됐고, 2026년 본사업을 위한 국비 766억 원도 확보됐다”며 “본사업 추진을 위해 남아 있는 1,500억 원 규모 지원에 맞는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정책 협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군수는 봉동읍 일원에 약 20만 평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885억 원 규모(국비 450억, 도비 53억, 군비 382억)로 컨센션을 포함한 문화선도산단 조성, 통합 여부와 무관하

게 추진 중인 13차 28개 상생협력사업과 관련해서도 도와의 책임 있는 협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군수는 “수천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와 정체적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 병원이 없는 완주군에 산재병원과 공공간호조리원 조성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오직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하며, 모든 결정은 군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제는 소모적인 지역 내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법적 최종 권한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 떡볶이 페스타, 전북 지역특화형 공모 ‘우수’

도비 포함 2억 7천 예산 확보
 작년 4만명 방문 9억 경제효과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가 전북 특별자치도 주관 지역특화형축제 공모 사업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도비 2,8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7,800만 원 규모의 축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지역특화형축제를 공모하고 있다. 2026년에는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6개 축제가 최종 선정됐으며, 순창군은 이 가운데 우수축제로 이름을 옮겼다.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는 순창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장과 전국민이 즐겨 찾는 음식인 떡볶이를 결합해 기획된 대표 먹거리 축제다. 순창 고추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시작된 이 축제는 지난해 두 번째 개최를 통해 그 가능성과 성과를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지역특화형축제 공모사업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사진=순창군>

한층 더 입증했다. 약 4만 명의 관람객이 축제를 찾았고, 약 9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거뒀다.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4.21점을 기록하며 먹거리 콘텐츠와 지역문화 향기, 유명 세포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I’m Fine 떡볶이’, 청의적인 요리 경연 프로그램 ‘떡볶이 대첩’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다채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순창군 11개 읍·면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떡볶이 판매 부스를 비롯해 전통 고추장 만들기 체험, 전통문화 관광지원과 연계한 마마투어 프로그램 등은 축제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콘텐츠로 기대를 모운다.

행사 기간에는 ‘찾아라 떡볶킹(AR 체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동계 전지훈련 840명 유치…지역 상권 ‘훈풍’

유소년 축구 28개팀 스포츠리그
 초등 테니스 전지훈련 진행

남원시는 지난 9일부터 동절기 유소년 축구와 초등 테니스 전지훈련팀 840여 명을 유치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들의 열기로 지역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 1차는 지난 9일부터 시작돼 13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2차 훈련이 이어진다. 제이트볼 전지훈련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운영됐으며 초등 테니스 동계 전지훈련도 2월 2일

부터 시작해 7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이번 유소년 축구 동계 전지훈련은 스포츠리그 형식의 훈련과 연습경기로 운영되며, 전국 28개팀 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남원종합스포츠단원 축구장, 반디비체육센터 1·2구장 등 지역 내 축구장과 체육시설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한다. 초등 테니스 동계 전지훈련에는 100여 명이 참여해 남원종합스포츠단원에서 집중 훈련을 진행한다.

전지훈련 기간 동안 선수단과 함께 방문한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숙박업소는 물론 마트, 카페,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전반에도 온기 가 확산되고 있다. 겨울철 관광 비수기임에도 체류형 스포츠 방문객이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원시는 안정적인 시설과 훈련 여건을 바탕으로 종목별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체류형 스포츠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나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지훈련팀 방문이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맞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이사정착·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
 주택 수리·신축 70% 지원 추진

순창군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순창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영농기반 마련을 목표로 △이사정착비 지원 △소득기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귀농 세대를 대상으로 영농 및 소득·생산 기반 마련에 필

주 중인 전입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가능하다.

먼저, ‘이사정착비 지원’은 초기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세대당 정액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2인 이하 세대 30만 원, 3인 이상 세대 50만 원이다.

안정적 소득 창출을 돋기 위한 소득 기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귀농 세대를 대상으로 영농 및 소득·생산 기반 마련에 필

요한 시설과 장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겨울동화축제’ 道 겨울축제 육성 선정

관광 비수기 극복 기반 마련
 수도권 홍보 콘텐츠 연계 추진

남원시의 ‘four동! 포동! 남원 겨울동화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겨울축제 축제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30백만원을 포함한 총 75백만원의 사업예산으로 겨울철 관광 비수기 극복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 겨울축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four동! 포동! 남원 겨울동화축제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축제 육성도 제고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부서는 강남 센트럴타워 네이버 등 전광판을 활용한 수도권 사전

홍보를 지원하고, 관광부서는 신관사부임행차 등 남원 대표 관광 콘텐츠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남원시립농어촌공연을 통해 수준 높은 전통문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보유하고 있는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고전소설 캐릭터를 활용한 퍼레이드, 화톳불체험을 비롯한 전통놀이, 남원전래문화 구연, 전통매듭 만들기 체험, 화인당 한복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겨울과 동화 콘셉트를 중심으로 남원의 전통문화와 이야기를 결합한 가족 참여형·체험형 겨울축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남원만의 겨울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드림스타트, 취약 아동 선제적 발굴 위기 개입 강화

완주군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지난해 취약계층 아동 314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학습 지원과 문화 체험 등 26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총 131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해 후원 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영·유아 조기 발달과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족 돌봄 및 양육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부모교육, 소방·안전교육 등 필수 프로그램과 함께 신체·건강, 인지·언어 등 4개 영역에서 총 27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 예방과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해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 공백 집중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기 요인에 대한 조기 개입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안전교육 등 아동 발달 영역별 필수 프로그램과 함께 △찾아가는 아동발달 서비스 △아동 심리검사 지원 △해충 없는 클린홈 △1:1 방문학습 등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한다.

또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종료 아동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사후 모니터링으로 성장과 생활 변화를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추진

65세 이상 기초수급·기초연금 유형 따라 최대 131만원 지원

성뇌간반응검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며, 진단일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순창군이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난청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창 신림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고창군 신림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홍성대)는 지난 19일 신림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홍성대 주민자치위원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고현규 신림면장은 “지역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신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평소에도 지역 봉사활동과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한빛가축약품상사,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김제시는 한빛가축약품상사(대표 김건호)가 20일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새해를 맞아 생활 여건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건호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나눔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한빛가축약품상사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주)다고내푸드, 전주시노인복지관에 후원품 전달

추어탕 꾸러미 2,100세트 약 2천만원 상당 전달

지역 향토기업인 (주)다고내푸드가 전주지역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후원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시와 (주)라고내푸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는 20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강용 (주)라고내푸드 대표, 한명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위한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라고내푸드는 전주지역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추어탕 꾸러미 2,100세트(환가액 2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지원된 추어탕 꾸러미는 서원노인복지관과 양지노인복지관에 전달돼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따뜻한 식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강용 (주)라고내푸드 대표는 “어르신들에게 식사 한 끼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주)라고내푸드는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군산 옥산면 이장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군산시 옥산면 이장협의회(회장 김중기)가 새해 이웃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20일 옥산면에 의하면,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제 한파와 추운 날씨로 인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장님들의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옥산면 이장협의회 김중기 회장은 “각 마을 이장님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꼭 필요로 한 곳에 전해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옥산면 고안성 면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년째 변함없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해주신 이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면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국제와이즈멘 정읍녹두클럽, 장애인복지관서 짜장면 나눔

장애인 230여 명에 식사 제공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남지방 정읍녹두클럽(회장 김용훈)이 지난 19일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녹두클럽 회원들이 참여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23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특히 회원들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에 참여해 정성껏 면을 삶고 소스를 볶아 그 의미를

더했다. 조리된 음식은 회원 10명이 맡아 이용자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한부 인사와 함께 직접 배식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김용훈 회장은 “비록 짜장면 한 그릇의 작은 나눔이지만, 이 따뜻한 식사가 서로의 일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NH농협 진안군지부, 진안군에 2,040만원 전달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한정호)는 지난 19일 진안군청을 방문하여 고한사랑기부금 2,04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식은 3년 연속 이어진 것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기탁금은 NH농협 진안군지부 임직원들의 지역 발전과 상생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매년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고한사랑기부제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는 전년보다 기부 규모를 확대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한정호 NH농협 진안군지부장은 “고한사랑기부제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3년 연속 이어진 직원들의 참여가 지역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 적상면 7개 사회단체 연합, 성금 650만원 기탁

20일 무주군 적상면 7개 사회단체연합회(회장 이성열)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참여 단체는 △적상면 발전협의회(위원장 이성열),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유지당), △이장협의회(회장 정태성), △청년회(회장 이희재), △자율방범대(대장 박희), △의용소방대(대장 전현석), △4H(회장 이근봉) 등으로 총 650만 원을 기탁했다.

전현석 적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 내 단체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돋는 일에 귀감이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된 성금은 적상면 저소득 홀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완주 이서면 최은례 위원,
성금 100만원 기탁

완주군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은례 위원이 이서면의 맞춤형복지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복지 사업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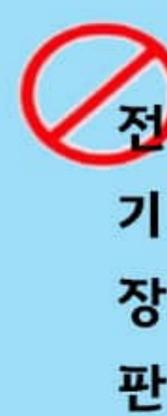
최은례 위원은 전북우정점fc봉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평소에도 이서면 취약계층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오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최은례 위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겨울철 화재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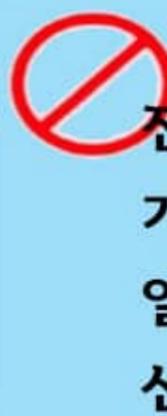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안전수칙



▶ 전기장판은 이불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금지



▶ 난방기구 주위에 인화
물질 두지 않기



▶ 사용하지 않을땐
전원코드 뽑기

〈一事一言〉



각자도생의 시대, 한반도는 자강 평화가 길이다(2)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평화 담론의 하나로 양국체제론에 따른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론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 고전적인 평화공존론은 1920년대 레닌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이후 핵위기가 고조되면서 1956년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 서기장이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전쟁회피와 핵억제, △비군사적 경쟁, △주권증증과 내정불간섭 등 3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과거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측이 '남북 평화공존'이라는 용어를 쓸 때마다 북측이 '두 개의 조선 혼동'이라고 비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고전적 평화공존론은 출발부터 '주권국가 간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남북한의 '2국가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다.

원래 취지가 평화통일의 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전적인 개념을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상황에 맞게 중장기적 통일의 목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재정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평화 담론도 단일하지 않다. 평화 담론은 군축 평화론과 자강평화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군축평화론은 기본적인 뿌리를 서구 진보진영의 평화론에 두고 있다. 군축평화론은 강대국의 제국주의 확장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 있지만, 제국주의 확장

과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중견국 또는 약소국의 평화론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서구 중심의 평화 담론과 중견국·약소국의 현실적인 평화론은 '전쟁 반대'라는 슬로건은 공유하지만, 그 동기와 목표 그리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큰 차이가 있다. 동기와 목적에서 전자는 제국주의의 문제, 후자는 생존과 자결에 두고 있다. 또한 방법론에서 전자가 군비통제에 치중하는 데 비해, 후자는 억제력을 위한 자주국방을 중시하고 있다.

서구의 평화론은 주로 강대국의 진보적 지지인들이 자국 정부의 팽창적 외교정책이나 군사개입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는 제국주의 속성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반성이다, 전쟁비용과 자국 군인의 희생을 줄이려는 내부적인 동기가 강하다.

이에 비해 자강평화론은 평화가 도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주권의 문제이다.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 주권을 침탈당하거나 경제적 예속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기방어적' 평화론이다. 즉, 평화가 곧 '자결권'과 직결된다.

군축평화론은 군사적 맥락에서의 억제력(Deterrence)이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전쟁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며 군비통제를 중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강평화론은 완전한 자주국방까지는 어렵더라도 강대국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억제력을 필수적이라고 인식한다.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군축은 강

대국 패권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축평화론이 '강자의 자제'를 촉구하는 담론이라면, 자강평화론은 '야자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투쟁에 가깝다. 따라서 넓

서 지역 패권을 분담하며 제국주의 질서유지에 동원되는 '아제 국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중견국이 한국이 처한 실존적 안보 위기를 철저히 외면한 서구 진보주의적인, 혹은 교조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한국의 자강평화론을 강대국 환상, 아제국주의라는 비난은 '중견국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없으며 오로지 강대국이 짜놓은 제도적 틀 안에서만 숨 쉬어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 논리일 뿐이다.

한국의 자강평화론은 주변 강대국들의 강압외교로부터 국가주권과 국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적 거부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국제정세의 위기 속에서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자강평화를 내세운 억제력도 '안보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군사력 증강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자강을 위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북한도 냉혹한 국제현실을 고려해 움직이는 만큼, 우리도 자강평화를 추구할 때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재정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도민 눈높이에서 다시 묻는 지방정치의 자격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제9대 지방선거에 출마할 선출직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다. 대상은 기초단체장부터 광역·기초의원까지 209명에 이르는 대규모 평가였고 그 과정과 기준은 이전보다 한층 엄격하고 촘촘해졌다.

단순한 공천을 위한 내부 절차를 넘어, 지방정치 전반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을 겨냥한 제도적 진화라는 점에서 이번 평가는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과 중심'과 '강화된 도덕성'이다. 단체장 평가는 당정 협의 이행 여부를 신규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도덕성·윤리 겸종 범위를 개인과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친인척과 족촌까지 확대했다.

이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의 주변 관리 책임까지 엄중히 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동안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방행정의 신뢰를 훼손해 온 각종 비위와 도덕적 해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대목이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전염병,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 노력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 정책 성과를 중점 반영한 점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정·경제·삶의 질·자치분권 분야의 지표를 객관화·세분화한 것도 성과를 말이 아닌 수치와 결과로 평가하겠다는 방향 전환으로 읽힌다.

의원 평가는 형식과 출석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정활동을 중심에 놓았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결과 시정 질의와 대표건의안, 제도·정책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를 정량·정성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본령을 분명히 반영한 조치다.

당일평가를 전 시·군 기초의회로 확대하고 당무 기여도를 반영한 것 역시, 지역과 당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기준으로 평가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법률·행정·교육·환경·청년·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참여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안전장치로 기능했다.

무엇보다 이번 평가는 신설·개선된 기준을 처음 적용한 평가라는 점에서 향후 전북 지방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평가는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는다. 결과가 공천과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도민의 신뢰로 연결된다.

또한 이번 평가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후속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평가 기준과 취지를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는 내부 기준이 아닌 도민과의 약속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엄격한 평가만큼이나 그 결과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천하느냐가 전북 지방정치의 신뢰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화된 도덕성과 실질적 성과 중심 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선택이야말로 전북 지방자치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대각사 목우자수심결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사찰본

-지정일 - 2016년 12월 9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



2011년 10월01일 창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월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강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충청지사 010-8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구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672-0308
제주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오늘의 시

폭설 / 류근

그대 떠난 길 지워지라고
눈이 내린다
그대 돌아올 길 아주 지워져 버리라고
온밤 내 욕설처럼 눈이 내린다
온 길도 간 길도 없이
깊은 눈밭 속으로 지워진 사람
떠돌다 온 벌자국마다 하얗게 피가 맺혀서

이제는 기억조차 면 빛으로 밟이 뚫인다
내게로 오는 모든 길이 문을 닫는다
귀를 막으면 종소리 같은
결별의 예감 한 일
살아서 바라보지 못할 푸른 눈시울
살아서 지은 무덤 위에
내 이름 위에

아니 아니, 아프게 눈이 내린다
참았던 눈우침처럼 눈이 내린다
그대 떠난 길 지워지라고
눈이 내린다
그대 돌아올 길 아주 지워져 버리라고
사나흘 눈 감고 젖은 눈이 내린다

시인 악력 : 1966년 문경 출생. 중앙대 문예창작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출간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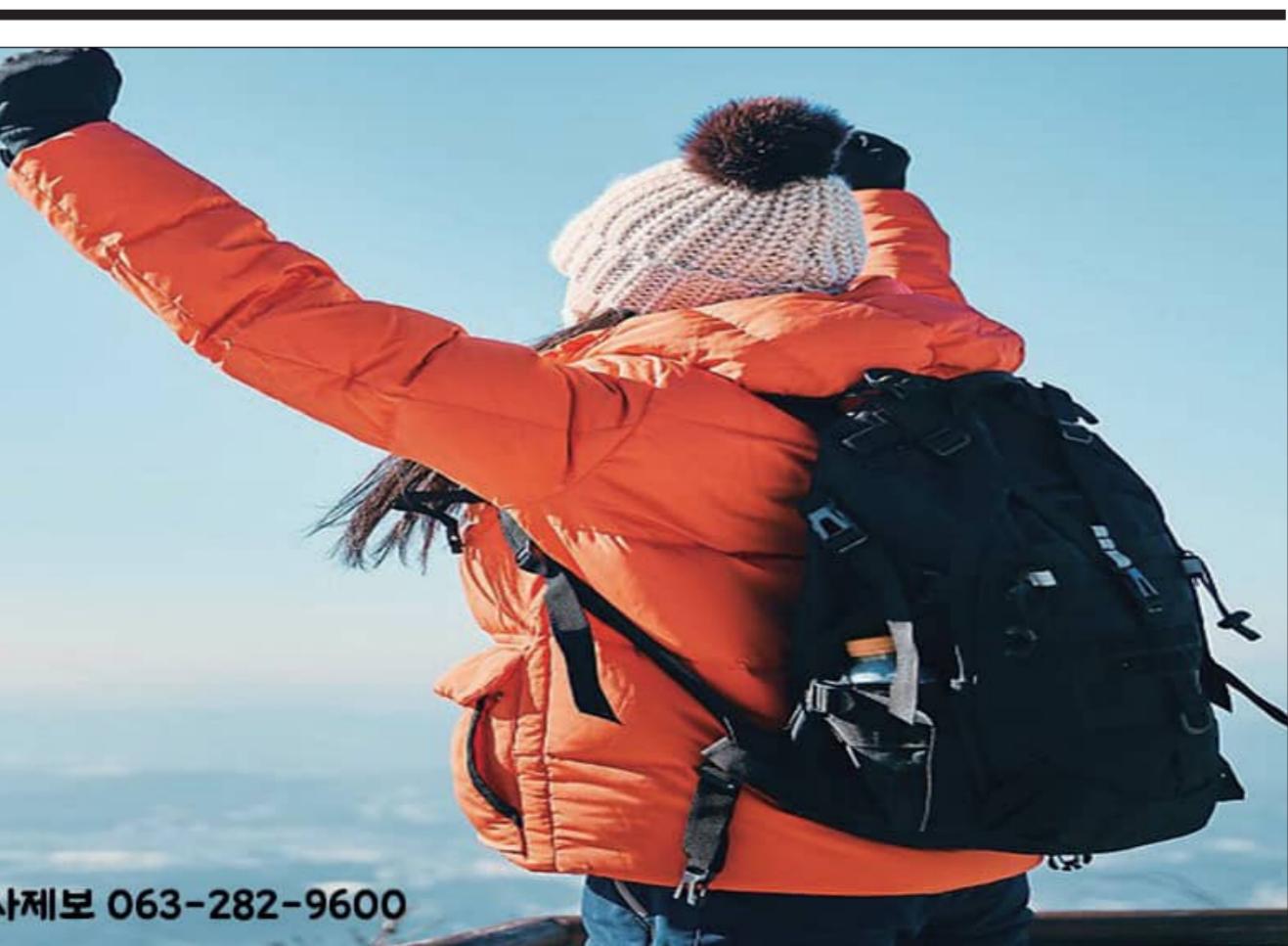
다.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 김광석에 의해 불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JBT

전북도민의 희망찬 미래의 신문

전북타임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람연금 바탕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일자리·생활인구 확대 지역 소멸 위기 돌파

부안군이 2026년을 민선 8기 후반부의 본격적인 결실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으로 삼고 바람연금을 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와 생활인구 중심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부안군은 2026년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반 바람연금 모델 구축, 첨단산업 푸드플랜 관광이 맞물리는 세바퀴 경제 고도화,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일자리와 생활인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6년은 민선 8기 종착점이면서 민선 9기의 시작점으로 그간 추진해온 정책 성과를 기사회하고 지역의 미래 구조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부안군은 단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민선 7~8기 추진한 정책을 오는 2030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전략으로 확장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편집자주)

[부안군 2026년 신년 설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부안형 바람연금 추진 전국 최초 RE100 산업단지 전환·국제케이팝학교 유치 집중 수소생산기지 완공 하루 1톤 규모 청정수소 생산·공급

◆ '바람을 소득으로'...부안형 바람연금 본격 추진

부안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2.46GW 규모로 14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에너지 전환 사업이다.

실증단지는 이미 운영 중이며 시범·확산단지는 오는 2030년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은 전력 생산에 그치지 않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법과 제도에 따라 지역과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특별지원금,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연간 약 13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 재원이 향후 20년간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부안형 바람연금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상풍력 이익공유 재원(추가 REC)을 활용해 올해부터 장수·순창군에서 시범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적용할 경우 부안군은 오는 2030년 이후 전 군민 대상 월평균 약 2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만금 성장 기회'...RE100 산단·국제케이팝학교 유치 집중

부안군은 이재명 정부 들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서남해 해상풍력과 연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전국 최초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방위산업 실증단지 및 국제케이팝학교 유치 등을 통해 새만금을 부안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 새만금 3권역 내부 개발사업 가속화를 위해 연결도로 구축,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 추진으로 부안 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세바퀴 경제 고도화'...친환경에너

지·농업·관광 선순환 구축

부안군은 수소산업·푸드플랜·관광이 맞물려 돌아가는 세바퀴 경제 정책을 고도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하루 1톤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총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부안군은 오는 2028년 전국 최초로 농촌형 부안수소도시가 완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을 통해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한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완공된 생산·기공·유통·소비가 접목된 먹거리 핵심 인프라인 푸드앤파크트리뷴을 중심으로 부안형 푸드플랜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에서 돈이 되는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 푸드플랜에 참여하는 농가는 600여 농가, 회원 소비자는 8600명을 넘어 있으며 누적 매출은 250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푸드플랜을 통해 창출된 매출이 부안 지역의 가공업체와 소규모 농가, 고령 농가로 다시 순환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체류·재방문 전략 강화'...지역소멸 위기 돌파구 생활인구 증대 최선

부안군은 생활인구 확보를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과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또 중장년층 재방문 유도와 20~30대 청년층 체류 확대를 병행해 연령별 체류인구 다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양·갯벌·생태관광, 글로컬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글로벌 휴양체류 관광 종합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 소멸 위기

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민생안정·참여행정 적극 추진'...군민 체감도 제고

부안군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한 재정집행과 함께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어민공익수당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부안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주민 밀착형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또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줄포지구 도시 재생사업 등 선정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갯벌 복원, 생태관광, 블루카본 조성 등 ESG 일자리 확대와 탄소배출권 모델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도 발굴할 방침이다.

부안군은 '결실창래(結實蒼來·지금까지 맺어온 열매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뜻으로 성과의 완성과 미래의 개척을 의미)'를 2026년 신년 화두로 삼아 군민과 함께 추진해 온 정책들을 충실히 마무리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푸르고 지속 가능한 부안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2026년을 바람연금으로 미래를 여는 도시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바람은 잠시 불고 지나지만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득은 부안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며 "에너지와 지역의 힘으로 키우고 정책을 군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부안의 미래를 군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인터뷰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형 바람연금 바탕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권익현 부안군수는 2026년 신년을 맞아 전 군민 월 25만원 부안형 바람연금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2.46GW 규모로 14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에너지 전환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의 중요한 의미는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역과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특별지원금,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연간 약 13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 재원이 2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부안군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부안형 바람연금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로 해상풍력 이익공유 재원(추가 REC)을 활용해 올해부터 순창·장수군에서 시범 운영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적용한 결과 부안은 2030년 이후 기준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략 월 2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안형 바람연금 및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해상풍력 사업은 어업 피해 보상, 송·변전 설비 보상, 건설과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함께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해상풍력과 수소산업,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이끌어 내고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지역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 성과가 반드시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